

[동아일보]

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토종박사가 미국 에어로졸학회(AAAR·공해 등 환경과학과 나노과학 바이오과학 등을 연계해 연구하는 학회)에서 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상했다.

서울대 공대(학장 한민구·韓民九)는 2000년 이 대학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동근(李東根·35) 박사가 22일 열린 미국 에어로졸학회에서 프리드랜더(Fried-lander)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
이 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에어로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을 선발해 수여하는 저명한 상으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지 않은 학자가 수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이 박사는 나노 입자 제조 공정에서 적외선 레이저빔을 이용해 나노 입자의 결정 모양을 조절하고, 균일한 크기의 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논문으로 상을 받았다.

그는 “국내서 학위를 받아도 세계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